

투데이 칼럼

북한 김정은 수령 호칭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을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북한에서 수령은 신격화된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선대에 '장군님'으로 불렸다.

사후에야 '선대 수령'이란 호칭이 주어졌다. 김정일에게도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에 이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 10년 만에 독자적인 사상과 이념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홀로사기를 하겠다는 자신감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 주민들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북한이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에는 전시된 무기들 뒤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보였다.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선대 지도자들의 사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난 1월 8차 당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대회였다.

5년 전 7차 당 대회에선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이 회회장 정중앙에 내걸렸지만, 8차 당 대회 때는 노동당 마크로 대체됐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각종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은 거의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독자적 통치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만 해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옷차림과 제스처를 따라했다.

그러나 올해 집권 10년 차에 들어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선대의 역사로 돌렸다. 아버지 시대의 '선군 정치'도 삭제하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아직 북한 당국 회의나 매체 등에

서 '김정은주의'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통치 담론을 집대성한 내용일 거라는 평가다.

결국 김정은주의는 핵 무력 강국을 추구하고자 하는 통치 사상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민생을 중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최근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칭하기도 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를 정당하고 우상화해 나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2일 자 논설에서 김 위원장을 세 비나사 수령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을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현대 조선의 수령들'이라는 식으로 통칭해 불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은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국방발전전람회 화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연주에 나선 지휘자가 김 위원장의 얼굴 모습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쿠바의 '체 게바라' 나 베트남의 '호찌민' 처럼 티셔츠에 얼굴이 등장하는 상징적 인물들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월 김 위원장 위인전 성격의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책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을 '지구를 뒤흔든 세기적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에 맞춘 치적 앞세우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내부 움직임은 심각한 경제난과 연결 지어 보자 시각도 있다. 북한 당국이 '수령 결사옹위' 정신 등을 강조해 주민 결속을 의도했을 거란 분석이다.

37세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 수령에 등극하며 집권 10년 차 절대 권력 굳히기에 들어갔다. 선대와 차별화 한 '김정은주의'가 북한 경제난 극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설

초대 전업미술가협회장 박만용 화백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전복지회는 지난 2002년 10월 창립했다. 박만용 작가가 초대 회장을 지냈다.

전업미술가(專業美術家)란 미술품만을 전문적으로 전념하여 창작하는 사람 또는 그 일이나 직업을 말한다.

박만용 화백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전복지회를 창립하여 전업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재정적, 공간적 지원을 했다. 특히 미술인들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섰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해결하는 등 전북 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현재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전라북도지회 지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박만용 화백은 지난 2013년 11월 제17회 전북예총하림예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와 하림그룹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전북예총하림예술상은 해마다 전북 도내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예술인에게 주

는 상이다. 10개 협회와 9개 시군 예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9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전복지회전이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락 1실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는 모두 44명이다. 서양화·동양화·서예·도예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화원들이 코로나 19 속에서도 예술의 혼을 불어넣은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그간 회원 대부분은 전업 미술인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슬픈 어려움과 마주했을 것이다.

전업미술가협회는 끊임없이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작품 차별성이다. 전업 작가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애정을 쏟아낸 완성된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작품전을 통해 지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건강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도

요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등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농식품이 갈수록 주목받는 추세다.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트렌드에서 가장 주목할 현상 중의 하나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가운데 꾸준히 건강식품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흑마늘(aged garlic)이다.

흑마늘 인기가 폭증하면서 중국산 마늘이 국산 흑마늘 건강식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실제로 원가가 국산의 20분의 1에 불과한 중국산 마늘을 갖고 국산 흑마늘이라고 속여 가장 건강식품을 만든 일당이 최근 불잡히기도 했다.

마늘은 흑마늘, 홍마늘, 마늘 환, 분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흑마늘은 통마늘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다. 마늘의 고부가 가치를 위한 가공품으로 개발되었다.

마늘을 85~95% 습도에서

60~70도를 유지시킨 후, 40일 정도 숙성시켜 만든 건강보조식품이다. 흑마늘은 블랙푸드 열풍과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흑마늘은 마늘의 분래 유효성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항산화 능력이 생마늘에 비해 약 10배 상승한다.

암 예방, 콜레스테롤 억제, 동맥경화 개선, 심장질환 예방, 알츠하이머 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마늘은 성 기능 개선 이외에도 항암효과, 혈압 개선, 피로회복, 당뇨병 예방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부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마늘에 다량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전신 노폐물을 제거한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되고 있다. 건강과 안전을 지향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몬테카를로 카지노 앞 고급 승용차들



모나코 국경일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수도 모나코에 있는 몬테카를로 카지노 앞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해 있다. 19일은 모나코 왕자 레이니에르 3세의 즉위와 모나코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캐나다 산사태로 탈선한 기관차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금주 초 내린 폭우와 그에 따른 산사태로 16일(현지시간) 호프 인근 프레이저 협곡에 탈선한 기관차의 열차가 놓여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